

“특화단지·시험평가센터 조속 완공... 우주항공산업 속도 낼 것”

민선 6기 후반기 새 설계 박 병 중 고흥군수

“더 높고, 더 행복한 고흥의 미래를 위해 우주항공산업과 기업 유치, 체류형 관광산업 구축, 농림어가 소득향상 등에 힘쓰겠습니다”

3선 연임으로 민선 6기 2년이자, 취임 10주년을 맞은 박병중 고흥군수는 4일 “지난 2006년 민선 4기 군수로 취임하면서 ‘하이 고흥, 해피 고흥’이라는 슬로건 아래 더 높고, 더 행복한 고흥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지난 10년을 씁없이 달려왔다”면서 “그동안 노력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남은 임기 2년은 고흥의 미래세대들이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군수는 민선 4기부터 10년 동안 고흥군수를 역임하면서 고흥의 경제와 사회, 문화와 복지에 이르기까지 타지역보다 한발 앞서나가는 창의적인 시책 추진으로 지방자치의 경쟁력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선 4기 취임 후 곧바로 군수의 권한 이양과 재정지원 혜택의 지역 안배 등 군정 시스템을 과감히 개혁했으며, 올해에도 3대 균형혁신운동을 주

체류형 관광 기반 숙박시설 확충

고흥의 역사 문화 계승 작업 집중

동강 장덕리 특화농공단지 조성

진해 일하는 공직문화와 새로운 행정시스템 정착에 주력하고 있다.

박 군수의 이 같은 노력은 군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와 생산적인 시책개발이 가능해졌으며, 이를 통해 민선 4·5기에 이어 민선 6기 2년의 반환점을 도는 10년동안 고흥군은 지명처럼 높게 흥하는 도시로 변화하고 있다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박 군수는 민선 10년동안 쌓은 행정 노하우를 바탕으로 남은 2년 동안 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 내겠다는 포부다.

박 군수는 우선 2000만 관광시대를 맞아 체류형 관광산업 실현을 첫번째 과제로 꺼내들었다.

박 군수는 “오는 2020년까지 고흥지역 곳곳에 총 5806억원을 투입해 리조트·호텔·콘도 등 1631실의 대규모 숙박시설과 163동의 펜션·빌라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숙박시설과 함께 공



원, 체험시설 등도 마련해 ‘머물다 가는 고흥 관광’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군은 실제 우주해양리조트 특구인 영남면

주요 역점사업은

- 2020년까지 총 1631실 규모 숙박시설 마련
- 신 고흥군 청사 지역 랜드마크로 조성
- 우주항공산업·드론 산업 육성
- 고흥 덩벙분청문화관·문화공원 건립
- 소득도 인권·자원봉사 성지로 구축

남열리 내에 오는 2020년 완공 목표로 3661억원을 들여 920실 규모의 리조트를 갖춘 골프장을 조성하며, 고흥만 관광지에는 오는 2018년 완공 목표로 940억원을 들여 콘도 203실, 빌라 15채, 수변공원, 아영장, 해양테마공원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박 군수는 남은 임기동안 고흥의 역사와 문화를 바로 세우는 데도 집중하겠다는 의지다.

박 군수는 내년 완공을 목표로 두원면 운대리 일원에 433여원을 들여 덩벙분청문화관 및 문화공원을 조성하고, 고흥의 역사인물인 김연수(판소리), 목일신(아동문학가), 유용인(어우야담 저자), 송수권(시인), 정걸(장군), 조종현(시조시인) 등의 역사인물을 재조명하는 사업도

강화한다.

박 군수는 우주항공산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 산업기반 강화에도 나선다.

고흥 우주기술 특화단지과 국가중합비행성능 시험장을 각각 2018년과 2019년 완공 목표로 진행중이며 우주항공부품시험평가센터와 해양융복합 소재산업 시설도 마련해 주력 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각오다.

박 군수는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단지과 물류센터 건립 등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박 군수는 이 밖에도 내년 말 완공예정인 고흥군청 신청사와 현 청사 활용 대책을 연계해 추진하는 한편 소득도를 인권과 자원봉사의 성지로 만들어 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박 군수에게는 관광산업이나 우주항공 산업 등도 중요하지만, 지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농림 어가소득향상도 빼놓을 수 있는 중요 현안이다. 박 군수는 “고흥지역민의 상당수는 농업과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다”면서 “지역민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을 위해 기후변화 등에 따른 미래 농업에 대비한 품목별 특화작목을 육성하고, 아열대 과수 재배 등을 집중 육성·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고흥=주각중기자 gjuu@kwangju.co.kr

고흥군 ‘농어촌용 쓰레기 분리수거 차량’ 대통령상

행자부 행정생산성 경진대회

대당 연간 1억5000만원 절감

고흥군이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차량 1대로 동시에 수거하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예산절감은 물론 행정효율성까지 높여 ‘민원 행정 생산성 분야’에서 최고 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고흥군은 “최근 정부서술청사에서 열린 올해의 행정생산성 향상 경진대회에서 ‘농어촌용 쓰레기 분리수거 차량 개발’을 발표, 최우수사례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이번 경진대회는 행정생산성 향상과 민원서비스혁신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확산을 통한 민원행정 역량 강화 등 정부 3.0서비스 구현을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고흥군은 중앙부처 및 전국 214개 자치단체 가운데 1, 2차 심사를 거쳐 민원행정 경진대회 본선에서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고흥군은 이날 농어촌 지역에서 기존의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2대의 차량을 운영하는 수거 방식은



정부 서술청사에서 최근 열린 행정생산성 향상 경진대회에서 고흥군 공직자 등이 대통령상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비효율적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수거 기능을 1대로 통합한 농어촌용 쓰레기 분리수거 차량 운영 실적을 발표했다.

고흥군은 지역 실정에 맞는 쓰레기 차량 구입·운영을 통해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한편 차량구입비와 인건비, 차량유지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고흥군은 지역별로 편차는 있지만, 통

합 쓰레기차 1대 운영 기준 연간 인건비 등 1억5000만원의 예산 절감효과 등이 있다

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고흥군은 현재 농어촌용 쓰레기 분리수거 차량의 특허등록을 마치고 총 7대를 보급·운영중이다. 고흥군은 차량 1대 판매시 특허비로 117만원을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9대를 판매해 1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고흥=주각중기자 gjuu@

보성 조성면 ‘희망버스’ 개통... 10개 마을 하루 6회 운행

보성군은 “농촌지역의 취약한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조성면 희망버스를 개통했다”고 4일 밝혔다.

‘희망버스’는 조성면 소재지에서 출발해 고내-대동-청능-봉산-신방-수풍-산정-감동-수촌-신촌마을을 거쳐 득량면 예당리까지 하루 6회 왕복 운행된다.

한편 보성군은 이날 조성면 희망버스 개통과 함께 버스노선 일부를 개편해 보성방축, 벌교 호동, 겸백 사곡, 득량 청암마을에도 군내버스를 추가 운영하는 등 주민 교통불편 해소 및 교통편의 증진에 나서고 있다. /별교=김윤성기자 kim0686@



보성군 오늘 우크라이나 체르니시 심포니 오케스트라 초청공연

보성군이 주최하고 한국국제예술교류협회가 주관하는 우크라이나 주립 체르니시 심포니 오케스트라 초청공연이 5일 오후 7시 30분 보성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우크라이나 국제 교류 음악제의 일환으로 폴란드,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에서 활동하는 정상급 연주자와 우크

라이나 주립 체르니시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연주를 접할 수 있는 기회다.

1952년 창단한 체르니시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6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우크라이나 음악원 출신 뮤지션들로 구성된 유망 정상급의 악단이다.

이번 초청공연에서는 글린카 ‘루슬란과 류드밀라 서곡’과 러시아 알츠, 비발디 사계중 ‘여름’, ‘오페라 류령 서곡’ 등

러시아 민속적 음악과 정상급 연주자가 선사하는 협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체르니시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정상급 연주로 지역 주민 및 청소년들에게 한여름 밤의 꿈과 희망을 전달하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연은 무료이며, 초등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숙박 (무인텔/콘도)

동업 / 투자 / 인수 하실분!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번지 도곡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객실 52개
- 시세 / 감정가 - 60억
- 동업 / 투자 / 매매 - 협의
- 경매로 11억 2500만원 낙찰
- 용 10억원 있음, 법인체 인수 가능
- 현재 가장임차인 / 허위 유치권 명도소송 진행중
- 명도 후 50억원 이상 매매 가능
- 소유자 H.010-3605-5000